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구현아* · 김바로** · 신수영*** · 엄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데이터의 입력 |
| 2. 선행 연구의 검토 | 5. 데이터베이스 구축 |
| 3. 연구 대상 및 내용 | 6. 나오며 |

【초록】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며, 중국어는 늘 중요한 외국어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글 창제 이후 간행된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는 당시 언어 특징과 생활, 문화상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寶庫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아직도 연구 방법과 연구 환경에 있어서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있어, 스캔한 원본 이미지 혹은 중국어 원문이나 언해문 등의 불완전한 2차 가공물 정도만 웹사이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인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譯語類解』, 『五倫全備諺解』, 『譯語類解補』, 『朴通事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華音啓蒙諺解』, 『華語類抄』와 중국어 원문만으로 이루어진 『老乞大』, 『朴通事新釋』의 총 11종 역학서 및 동일한 서명의 다른 판본 총 31개의 서적을 대상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서 아직 제공하지 않는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데이터를 TSV(Tab Separated Values)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구축

* 제1저자.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hyunah1224@gmail.com)

** 교신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조교수 (ddokbaro@gmail.com)

*** 참여저자.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조교수 (kumei@hanmail.com)

**** 참여저자.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yangedeyan@gmail.com)

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 대한 원문과 번역문을 총망라한 최초의 연구성과이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국학 자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어, 중국어학 및 문화사 등의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에 대한 사회사적, 문화사적 연구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키워드】 중국어 역학서, 데이터베이스, 시멘틱 데이터, 사역원, 조선시대, 『노걸대』, 『박통사』, 언해, 『광운』, 좌음, 우음, 현대어 번역

1. 들어가며

오늘날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중들이 지식을 얻는 도구가 모두 인터넷이 기반이 되면서, 인문학의 콘텐츠도 역시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 구축, 분석, 시각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콘텐츠를 디지털화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보존 가치와 연구의 중요성 면에서 국학(國學) 자료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역원(司譯院)의 여러 중국어 역학서는 당시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학 자료로 손꼽힌다. 중국어 역학서는 중국어 원문에 당시의 한자 및 중국어 주음(注音)을 더하고 당시의 우리말로 번역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중국어, 한국어의 어음, 어휘와 같은 언어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의식주, 매매, 관직, 호칭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연구 및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조선시대 사역원 자료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연구성과가 집적되어 있다.¹⁾ 어휘, 어법, 음운적인 특징과 교육학사, 문화사적 측면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

1) 노걸대의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는 鄭光(1974), 「翻譯老乞大 朴通事의 中國語音 表記 研究: 四聲通解 歌韻內 諸字의 中聲表記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64집, 강신항(1978), 「노걸대(老乞大) 박통사언해내자음의 (朴通事諺解內字音) 음계」 등이 있으며, 어법에 대한 연구는 김광조(1998),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의 조사 “료(了)”, “래(來)”, “야(也)”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에 관하여」, 『중국문학』, 30집, 류성은(2000), 「『노걸대』, 『박통사』에 보이는 “的”와 “着”의 용법 고찰」, 『중국언어연구』, 10집, 어휘에 대한 연구는 유성은(2003), 「근대중국어 유의어 소고 - 『노걸대』, 『박통사』에 보이는 상용동사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6집, 신용권(2003), 「『老乞大』에 나타난 後置詞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42집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판본학, 문화학 등의 방면의 논문이 다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음운 방면 42편, 어휘 분야 29편, 문법 41편, 판본학 11편, 사회문화 방면 21편, 교육학 방면 14편, 번역학 방면 3편, 화용론 분야 9편의 논문이 있다. 이 외에도 정광(2010, 2011)에 의해 원본 『老乞大』 및 『老朴集覽』에 대한 역주가 저서로 편찬되었고, 그 외 양오진(2008)의 『노걸대박통사연구』, 이태수(2003) 『老乞大四種版本』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언어학 연구가 ‘이론’ 연구와 참신했음을 우대하고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연구 분위기 속에 중국어 역학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소 퇴색된 감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관련 연구도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필자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의 정보를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연구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 대한 디지털화는 몇몇 기존의 성과가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통 문헌의 디지털화에 대한 국내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예로,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원본 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만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서 DB>²⁾나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³⁾나 <어디메>⁴⁾와 같은 사이트로, 이들 웹사이트는 중국어 원문이나 언해문이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서 DB>는 중국어 원문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나 <어디메>는 중국어 주음(注音)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사이트들 모두 특정 글자나 단어를 기준으로 한 검색도 불가할 정도로 검색 역시 제한적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미 고적(古籍)에 대한 디지털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Chinese Text Project(이하 CTEXT)⁵⁾의 경우 자국의 고적을 스캔한 이미지 데이터 혹은 이미지 데이터를 다시 2차 데이터로 가공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심지어 Baidu(百度) 웹에서 우리 문헌인 『老乞大』나 『朴通事』의 원본을 디지털화하기도 하였다.⁶⁾ <東方言語學>⁷⁾나 대만의 <小學堂>⁸⁾에서는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화를 넘어 각 한자에 대한 문헌별, 시대별, 글자별 음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도로 가공한 것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 학계의 관심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語言研究』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 연구과제: 김문경, 조선시대 역학서의 종합적 연구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의 지식정보화, 2011.10.01.~2016.09.30.,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세계화팀; 웹서비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AAA-2101>

3) 오민석,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https://kohico.kr/>

4) 이민철, <어디메>, <https://akorn.bab2min.pe.kr/>

5) Donald Sturgeon,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

6) 『老乞大』와 『朴通事』의 원문은 <https://yuedu.baidu.com>에서 검색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 검색 서비스를 중지하여 현재는 열람이 불가하다. 다음 장에 해당 서비스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7) 上海高校比較語言學E-研究院, 東方言語學, www.eastli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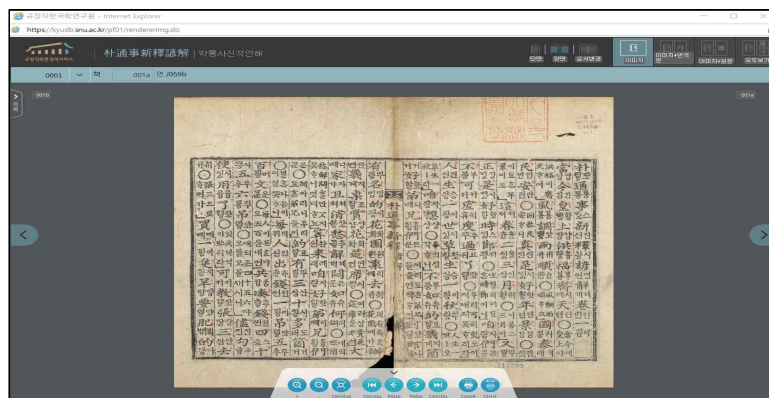
8) 臺灣大學中國文學系·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資訊科學研究所·數位文化中心,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국학 자료 중에서도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를 선정하여 역학서 원문의 모든 정보, 즉 중국어 원문, 주음(注音), 언해문을 디지털화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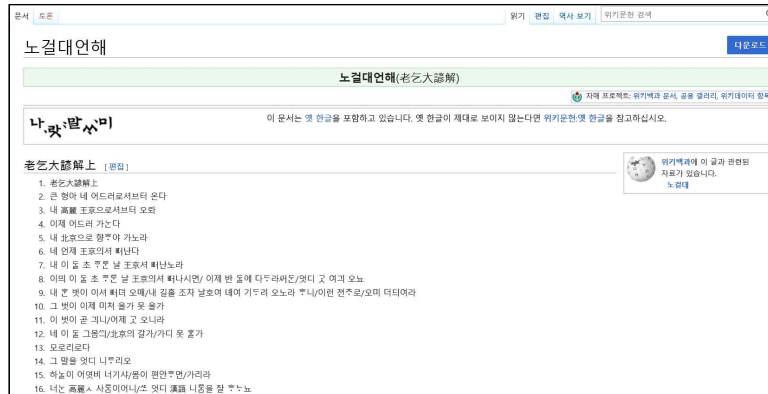
2. 선행 연구의 검토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본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있는 데이터 집합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현대에는 한 분야의 정보를 정리해 놓은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총칭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원본의 내용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 이를 문서화 한 것, 지류 서적으로 출간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지칭하기도 한다. 지류 서적으로 출간된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 데이터베이스의 예는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에서 출간한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重刊老乞大諺解』의 작업을 들 수 있다. 이 저작은 원문을 텍스트로 정리하고 교점 작업을 해놓았는데, 주음에 대한 입력은 제외되었으며 비매용으로 소량이 출판되어 국내 주요 대학의 도서관에 직접 가야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원본에 대한 스캔 이미지를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예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웹사이트를 들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는 원전 자료의 스캔 이미지만 열람할 수 있는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자자료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이미지+원문”, “이미지+번역문”과 같은 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모두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1차 데이터 가공’에 속한다.



<그림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 內 『朴通事新釋諺解』 원문

조선 시대 역학서를 디지털 문서화한 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로 <위키문헌>을 들 수 있다.⁹⁾ 이 웹사이트에는 조선 시대에 출간된 일부언해류 문헌자료가 디지털 문서화되어 있는데,¹⁰⁾ 중국어 역학서로는 『老乞大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 『譯語類解』가 있다.



<그림2> 위키문헌 『老乞大諺解』 디지털 문서화 자료¹¹⁾



<그림3> 위키문헌 『重刊老乞大諺解』 디지털 문서화 자료

위키문헌에 디지털화된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 중 『重刊老乞大諺解』는 중국어 원문, 주음(注音), 언해문이 모두 정리되어 있지만, 『老乞大諺解』나 『譯語類解』의 경우 주음(注音)이 제외되고 중국어 원문과 언해문만 정리되어 있어 디지털화된 정보

9)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문헌(한국어), <https://ko.wikisource.org/>

10) 이외에도 위키문헌에는 『救急方諺解』, 『訓民正音諺解』, 『論語諺解』의 원문이 디지털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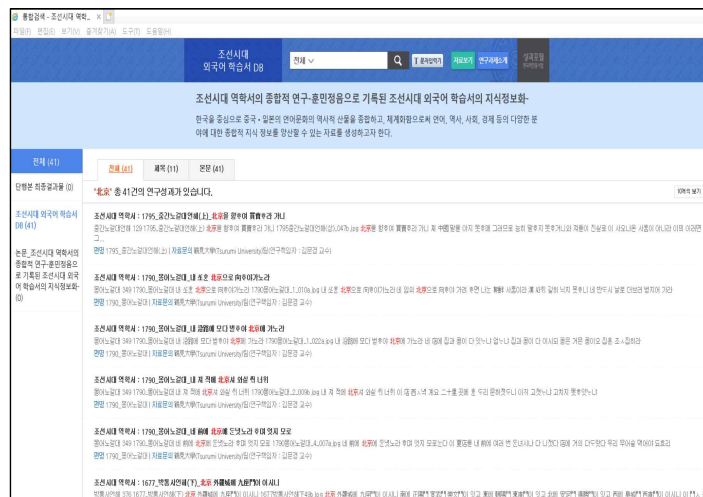
11)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문헌(한국어),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https://ko.wikisource.org/wiki/노걸대언해>

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위키문헌은 검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디지털 정보를 자유로이 업로드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는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조선 시대 역학서의 종합적 연구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서의 지식정보화”란 제목으로 진행된 사업 결과물을 웹 서비스 한 데이터베이스이다(<그림4>, <그림5> 참고).



<그림4>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 중 『蒙語老乞大』의 디지털 문서화 자료 예



<그림5>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 중 '북경' 검색 결과 예

이 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문을 디지털 문서화 한 ‘2차 데이터 가공’의 예에 속한다. <그림5>에서 보이듯이 불완전하지만 검색 기능도 겸하고 있어 ‘3차 데이터 가공’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서 DB>는 웹을 기반으로 사역원의 외국어 교재를 총망라한 최초의 데이터베이스지만, 원문과 주음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해문 부분만이 디지털화되어 있다. 또한 한 문장을 한 페이지로 나누어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언해문, 원문 이미지, 검색 기능에 영역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정보 습득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의 국어 역사 자료 종합 정비 사업으로 구축한 XML 형식의 2014, 2015, 2016, 2018년 “역사자료종합정비결과물”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인 오류 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 문헌에 이르는 약 1000여 개 문헌자료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며, 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老乞大諺解』, 『譯語類解』 등 중국어 역학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어 원문과 언해문만 디지털화하였으며, 주음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외에도 영인대조 문헌은 회원 등록을 받고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사이트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그림6> 참고).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title 언어=chi 장차=01a:1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朴通事新釋諺解 卷一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title 언어=kor 장차=01a:1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없음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2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當今皇上洪福齊天。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2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當今에 皇上이 洪福이 齊天하여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3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風調雨順，國泰民安。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3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風調雨順하고 國泰民安하네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4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真是好年景。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4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진것 이 도흔 年景이오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5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這春二三月，又正是好時節。
<1765_朴通事新釋諺解 卷一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5 입력자본=朴通事新釋諺解> 이 봄 二三月이 또 경히 이 도흔 時節이니

<그림6>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의 디지털 문서화 자료 예

국내에서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상술한 몇 개의 웹사이트가 전부이다. 각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웹사이트들은 원전 자료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는 1차 데이터 가공이나 이에 대한 원문을 정리한 2차 데이터 가공한 형태가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언어 정보에 대해 검색할 수 있는 3차 데이터 가공 형태의 사이트는 사실상 부재하다. 두 번째, 2차 데이터로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라도 중국어 원문과 언해문만을

小學堂은 각 한자에 대한 여러 시대의 음운, 문헌별 사용된 반절, 방언음 등을 모두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해외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매우 방대한 자료를 가장 정교하게 가공한 예에 해당하며,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향해야 할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老乞大』, 『朴通事諺解』의 원문이 중국 사이트 百度(Baidu)에 디지털화되었다는 사실은 반성할만한 대목이다(<그림9>참고). 예를 들면 <그림9>와 같다.



<그림9> 百度(Baidu)의 『老乞大』 예

이는 본래 중국의 西南出版社가 전자 출판한 자료를 Baidu Yuedu(百度閱讀)와 연계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원문에 대한 필기, 책갈피 기능도 제공한다.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공하여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도 우리 문헌에 대한 디지털 문서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자국의 문헌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3. 연구 대상 및 내용

조선 시대에 발간된 중국어 역학서 원문을 1차 데이터 가공하여 공개한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서는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의 여러 판본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는 여기서 이 웹사이트에서 스캔된 이미지 파일의 원문보기를 제공하는 판본의 원문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중에서도 언해문과 주음이 모두 기록된 『老乞

분류	서명	편찬 년대	편찬자	청구기호	책권수	판본 사항	비고
회화 학습서	『老乞大 諺解』	1670	사역원	奎2044-v.1-2	2卷 2冊	戊申字 ¹⁷⁾	
		1745	申聖淵 等	奎2303-v.1-2	2卷 2冊	木版本	· 평양 감영에서 간행, ‘평양판’으로 칭함 ¹⁸⁾ · 서문(序文) 존재
	『重刊 老乞大 諺解』	1795	李洙 等	奎2049-v.1-2	2冊	木版本	
		1795	李洙 等	一簣古495.1824-Y6 3jbv.1	1冊	木版本	· 上卷만 존재
		1795	李洙 等	一簣古495.1824-Y6 3jc	1冊 ¹⁹⁾	木版本	· 下卷만 존재
		1795	李洙 等	一簣古495.1824-Y6 3jv.1-2	2冊	-20)	
		1795	李洙 等	가람古495.1824-Y6 3ja-v.1-2	2冊	木版本	
	『朴通事 諺解』	1677	邊暹 等	奎貴1810-v.1-3	3冊	木版本	· 서문(序文) 존재 · 편찬자 목록 존 재 · 한문 협주(夾註) 존재

	『朴通事 新釋 諺解』	1765	金昌祚	古3917-8-v.1-3	3卷 3冊	木版本	
		1765	金昌祚	一簣古495.18-C456 b-v.1-2	2卷 2冊	木版本	· 卷三은 없음
		1765	金昌祚	一簣古495.1824-G4 15ba	1冊	木版本	· 卷一만 존재
		1776-1 800 ²¹⁾	金昌祚	一簣古495.1824-G4 15b	2冊	木版本	· 卷三은 없음
		미상	金昌祚	一簣古495.1824-B1 5	1冊 ²²⁾	木版本	· 卷三만 존재
		미상	金昌祚	가람古 495.1824-C 456b- v.1	1冊 ²³⁾	木版本	· 卷一만 존재
	『伍倫 全備 諺解』	1721	사역원	奎1456	8卷 4冊	木版本	· 서문(序文) 존재 · 인용(引用) 서목 (書目) 존재 · 한문 협주(夾註) 존재
		1721	미상	古3917-9-v.1-4	8卷 4冊	木版本	· 서문(序文) 존재 · 인용(引用) 서목 (書目) 존재 · 한문 협주(夾註) 존재
	『華音啓 蒙諺解』	1863 ²⁴⁾	李應憲	가람古495.183-Y54 h	1冊	全史字	· 서문(序文) 존재
		1890	미상	一簣古495.18-H99g	1冊	全史字	· 서문(序文) 존재
어휘 학습서	『譯語 類解』	1690	金敬俊 等	가람古413.1-G418y -v.1-2	2卷 2冊	木版本	
		1690	金敬俊 等	一簣古413.1-G418s	1卷 1冊	木版本	· 上卷만 존재
		1775	金敬俊 等	古3912-5-v.1-2	2卷 2冊	木版本	· 본문 안에 1690 年版, 1775年版, 필사가 섞여있음
		1775	金敬俊 等	一簣古413.1-G418y -v.1-2	2卷 2冊	木版本	· 卷一은 1775年版, 卷二는 1690年版 임
	『譯語類 解補』	1775	金弘喆	一簣古413.1-G419y	1冊	木版本	· 발문(跋文) 존재 · 편찬자 목록 존 재

		1775	金弘喆	가람古413.1-G419y	1冊	木版本	· 발문(跋文) 존재 · 편찬자 목록 존재
	『華語類抄』	1863-1907 ²⁵⁾	미상	一簣古418.3-H99y	1冊	全史字 ²⁶⁾	· 권두에 『千字文』, 『百家姓』, 『華音啓蒙諺解』가 첨부됨
		1863-1907 ²⁷⁾	미상	가람古418.3-H99	1冊	木版本	
		미상	미상	奎4044	1冊	木版本	
		미상	미상	一簣古418.3-H99	1冊	木版本	
		미상	미상	가람古418.3-H99a	1冊	木版本	· 권두에 『千字文』, 『百家姓』, 『華音啓蒙諺解』가 첨부됨
원문	『老乞大』	미상	미상	奎6293	1冊	木版本	
	『朴通事新釋』	英祖代中盤	邊憲 등	一簣古495.1824-B992b	1冊	木版本	· 서문(序文) 존재 · 한문 협주(夾註) 존재

<표1> 본 연구 대상의 서지사항 정리

서지사항을 통해 본 연구 대상은 체제나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동일한 서명의 판본이 여러 개 있으며 판본 간 본문 내용은 동일하나 권수가 다른 경우로, 대부분 여러 권 중 일부 권책(卷冊)이 산실된 경우이

17) 금속활자본에 속한다.

18) 『老乞大諺解』 판본은 박철민, 「戊申字本 『老乞大諺解』의 善本과 교정 고찰」, 『규장각』, vol.5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06, pp.49-72 참조.

19) 본래 下卷만 존재하여 책권수는 1冊에 해당하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 2冊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의 상세정보에 해당 원문에 대한 상세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청구기호의 원문과 동일한 木版本으로 보인다.

21) 正祖 年間に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권말에 ‘乙卯仲秋本院重刊’가 기록되어 있지만, 후대에 목서한 것이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22) 이 책에 대한 卷一이 「가람 古 495. 1824-C456b」에 해당한다.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의 상세정보의 ‘책권수’는 소장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1冊’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3) 본 청구기호 원서의 상세정보의 ‘책권수’부분도 ‘1冊’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4) 1883년 편찬된 『華音啓蒙』에 대한 언해본인데, 간행연대가 1863으로 잘못 나와 있다. 이 서적의 상세정보에는 간행연도가 19세기 중엽-20세기 초로 나와 있다.

2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의 상세정보에는 간행연도가 “19世紀 中葉-20世紀 初(高宗年間:1863-1907)”로 되어 있으나 상부의 간행연대에는 1863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홍순혁(1946)에 의하면 권두의 『華音啓蒙諺解』와 이 서적의 목활자가 같은 크기이고, 인쇄용지나 책의 크기가 같은 점으로 보아 모두 고종 20년 癸未, 1883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6) 홍순혁(1946)에 의하면 『華語類抄』는 목활자본과 목각본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책은 全史字, 즉 금속활자로 편찬된 것이다.

27) 上同.

다. 그 예로는 『重刊老乞大諺解』, 『朴通事新釋諺解』, 『譯語類解補』가 있다. 두 번째, 동일한 서명의 판본이 여러 개 있으며, 판본에 따라 주음(注音)이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어 『伍倫全備諺解』, 『華音啓蒙諺解』가 있다. 세 번째, 각 판본의 중국어 원문, 언해문, 주음에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동일한 서명의 판본이 여러 개 있으며, 판본에 따라 중국어 원문, 언해문, 주음이 모두 다른 경우이다. 그 예로 『老乞大諺解』가 있다. 네 번째로, 동일한 서명의 판본이 여러 개 있으며, 일부 판본에 본서 이외의 다른 서적이 추가된 경우이다. 『華語類抄』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서명의 판본이 여러 개 있으며, 일부 판본에 간행년도가 다른 여러 판본이 섞여 있는 경우로, 『譯語類解補』가 이러한 예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문헌	청구기호	판본 간 차이 비교	내용
『老乞大諺解』	奎2044-v.1-2	對뒤뒤句규규罷罷바바吟인인詩스스	注音 상이, 한자 자형 상이
	奎2303-v.1-2	對뒤뒤句규규罷罷바바吟임인詩스스	
『伍倫全備諺解』	奎1456	與유유同동동郡한안府부부判판판交교교好할한	注音 상이
	古3917-9-v.1-4	與유유同동동郡한안府부부判판판交교교好할한	
『華音啓蒙諺解』	一簣古495.18-H99g	好호說說說這저樣양擡태舉舉我我我怎즈麼마當當得더起치呢니	注音 상이
	가람古495.183-Y54h	好호說說說這저樣양擡태舉舉我我我怎즈麼마當當得더起치呢니	
『譯語類解』	가람古413.1-G418y-v.1-2	河하하沿연연//○물?	언해문 상이
	古3912-5-v.1-2	河하하沿연연//○물?//○河俗音호//	
『華語類抄』	一簣古418.3-H99y	老老天天//○하늘//日이頭투//○히//太太陽陽//○히//日이量훈//○히무	배열 방식 상이
	가람古418.3-H99	老老天天//○하늘//(공백)日이頭투//○히(공백)太太陽陽//	

<표2> 판본 간 차이점의 유형별 예시

현재 학계에서는 이런 판본 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본문 내용에 대한 연구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판본의 차이를 원문, 번역문 입력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구에 더 신뢰도 높은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2>의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원문 데이터이다. 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의 중국어 원문, 주음, 언해문을 모두 포함한 본문 그대로의 정보가 모두 디지털 문서화 된 웹사이트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 본문의 정보를 그대로 디지털 문서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번역문 데이터이다. 기존에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에 대한 번역 저서는 존재하지만, 이외 다른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 대한 번역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를 다시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譯語類解』, 『伍倫全備諺解』, 『譯語類解補』, 『朴通事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華音啓蒙諺解』, 『華語類抄』, 『老乞大』, 『朴通事新釋』등 9종의 중국어 역학서를 번역하고, 이를 디지털 문서화 된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4. 데이터의 입력

1) 원문 데이터 입력 원칙

데이터의 입력은 입력자의 편의를 위해 한글 문서(hwp)로 하고, 이를 다시 TSV 혹은 XML 형태로 변환했다.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문보기 이미지를 기준으로 권, 면, 행에 따라 데이터 기본 스키마를 선정했다. 그 뒤, 다음과 같이 데이터 입력 원칙을 수립했다.

첫째, 한자 및 언해문의 입력은 원문보기에 보이는 그대로의 입력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과 연관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원문에서 출현하는 이체자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원문보기에 보이는 그대로의 이체자로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 『老乞大諺解』의 원문보기에 따르면 해당 원문에서 ‘왕경(王京)’의 ‘경’은 ‘京’으로, 『華音啓蒙諺解』의 원문보기에서 ‘언해(諺解)’의 ‘해’가 ‘解’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체자를 상용한자인 ‘京’과 ‘解’로 대체하여 입력하지 않고 원문에 따라 이체자 자형 그대로 입력하였다. 입력에 사용한 이체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유니코드 한자 이체자 정보 사전”²⁸⁾을 활용하였다. 이체자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자(破字)의 형식을 빌어 글자의 구성자를 +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 序는 广+手으로, 擗은 扌+幸, 紉는 糸+口로 입력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주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언해류 문헌 중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朴通事新釋諺解』, 『伍倫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니코드 한자 이체자 정보 사전』: <http://waks.aks.ac.kr/unicode/>

全備諺解』 등에 표기된 좌음(左音)은 당시 중국음을 나타내기 위해 치두음(齒頭音)을 ㅅ, ㅆ, ㅈ, ㅊ, ㅌ으로, 정치음(正齒音)을 ㅅ, ㅆ, ㅈ, ㅊ, ㅌ으로 구분해 썼는데, 일부 경계가 모호한 글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본래 치두음, 정치음을 의도한 것이나 목 각 과정에서 혹은 활자 사용 시 좌, 우 획 길이의 차이를 확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넓은 의미에서 오각(誤刻)에 속한다. 이처럼 현대 한글 초성자의 ㅅ, ㅆ, ㅈ, ㅊ, ㅌ과 가깝게 보이는 글자들은 보이는 그대로 현대 한글 초성자와 같이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력한 이유는 ‘교정(校正)’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표기된 글자가 실제로 치두음 혹은 정치음의 표기인지는 중국어의 중고음 성모에 기준하여 바로 잡을 수도 있으나, 이는 ‘교정’의 영역에 속한다. 문헌에 대한 교정은 또 하나의 독립된 대형 연구에 속하기에 본 연구 기획 시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렇게 현대 한글 자음과 가깝게 보이는 글자를 함부로 교정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방언음을 반영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언해류 문헌의 주음이 당시 중국의 東北官話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는데,²⁹⁾ 東北官話에서는 치두음과 정치음을 구분하지 않거나, 치두음을 정치음으로, 정치음을 치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언해류 문헌이 이와 같은 당대의 방언 어음 혼동 현상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⁰⁾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의 자음에는 중국어의 정치음 성모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으므로 언문(諺文)을 이용한 중국어 음운 전사 과정에서 이를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제작자 자체가 심음(審音)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작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치두음과 정치음의 경계가 모호한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로 교정하지 않고 원문 보기의 원문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았다. 세 번째 문제는 한자, 언해문, 주음의 오각(誤刻)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원문보기의 원문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였다. 여러 판본의 오각을 교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입력하면 향후 서지학적 판본 연구 시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언해류의 경우 언해문 해제의 앞, 뒤에 ‘///’, 유해류의 경우 언해문 해제의 앞, 뒤에 ‘//’를 첨가한다. 이는 향후 데이터 구축 시 이 기호에 따라 언해문을 따로 추출하기 위함이다. 셋째, 한문 협주가 있는 경우 (『朴通事新釋諺解』, 『伍倫全備諺解』

29) 鄒德文·金茗竹은 『華音啓蒙』, 『華音啓蒙諺解』, 『你呢貴姓』에 출현하는 誤字를 통해 이 글자들이 東北官話와 관련된 것임을 규명하였다. 鄒德文·金茗竹, 「朝鮮四種文獻所見漢語聲母的清代東北方音特徵」, 『北方論叢』, 第2期, 哈爾濱師範大學, 2015, pp.72-77 참조.

30) 清代 東北官話를 바탕으로 편찬된 『黃鍾通韻』(1744), 『奉天通志』(1934)와 같은 문헌에서는 精組와 照組 성모가 서로 혼동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출현한다. 鄒德文, 『清代東北方言語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p.108, p.111 참조, 뿐만 아니라 오늘날 哈爾濱, 興城, 瀋陽, 吉林과 같은 지역에서도 역시 精組와 照組가 혼동되거나 합류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錢曾怡, 『漢語官話方言研究』, 齊魯書社, 2010, pp.68-69, pp.76-77 참조.

등)에도 해제의 앞, 뒤에 ‘///’를 첨가하고, ○(유니코드 25E6)표기를 기입한 후 한문 협주를 입력한다. 넷째, 언해류의 언해문 해제 앞에는 ○(유니코드 25CB)를 사용한다. 다섯째, 중국어 역학서 유해류의 언해문 해제 앞에 ○(유니코드 25E6)를 사용한다. 여섯째, 원문보기에서 인식이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다른 판본을 참고하여 입력하나, 최종적으로 인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유니코드 22A0)를 사용한다. 일곱째, 어휘 단위의 구분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譯語類解』와 같이 상, 하단 구분이 있어 공간적으로 나뉘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덟째, 인용 서목의 서명과 해제 사이에는 +(유니코드FF0B)를 두 번 기입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 입력의 실제 예시는 <표3>, <표4>와 같다.

권	면	행	원문
0001	0009	1	귀고子중즈拖터토爐루随随취食쌍시去큐큐///○李四로ㅎ여과실과施爐隨食을사
0001	0009	2	라가게ㅎ라///○果子果實也又呼油蜜果亦曰果子曰蜜果子制形如棗拖爐音義云麵作小餅質問云以麥
0001	0009	3	麵和油蜜印成花餅烙熟食之隨食音義云與拖爐相似質問云以麥麵和油作小餅喫茶時食之取其香酥
0001	0009	4	也原本用隨字故反譯亦用隨字俗音취今更質之字作饅宜從쉬音讀今俗亦曰饅餅///酒질주京강강
0001	0009	5	城정창槽짚차房방雖쉬쉬然선선多더도///○술은京城예술집이비록만ㅎ나///○槽房
0001	0009	6	釀酒出賣之家官收其稅///街계계市스스酒질주打다다將장장來래레怎즘麼麼마마
0001	0009	7	喫칭치///○저젯술을가져오면엇디머그리오///咱장자們문문問문운나나光광光祿
0001	0009	8	릉루寺스스裏리리///○우리더光祿寺에무리///○光祿寺在東長安門內其屬有大官珍羞良醢掌醢
0001	0009	9	四署掌供辦內府諸品膳羞酒醴及管待使客之事///討달탄南난난方방방來래레의딩디蜜
0001	0009	10	밍미林린린檣긴킨燒살썩酒질주一항이桶통통///○南方으로서온蜜林擒燒酒훈통과//

<표3> 『朴通事諺解』 입력 예시

일반적인 언해류 문헌은 본문의 행을 기준으로 행을 나누어 본문을 입력하되, 언해문의 앞뒤에는 ‘///’를 넣고 한문 협주 앞에는 ‘///’를 다시 입력한 후 ○를 쓰고 협주를 입력한다.

권	면	행	원문
0001	0003	11	譯잉이語유유類류류解계계補부부
0001	0003	12	天턴턴文문문補부부

0001	0003	13	天뎨뎨淸淸亮亮량량//○하늘청명하다//(공백)天뎨뎨暗暗暗暗昏昏//○하늘흐이다//
0001	0003	14	天뎨뎨道똥똥變變변변了了랄랄//○뎨그변하다//(공백)日심시光광광//○히ㅅ빛//
0001	0003	15	日심시晔뽕황眼眼연연//○히ㅅ빛눈에브의다//(공백)日심시珥숯숯//○히ㅅ귀엣골//
0001	0003	16	日심시頭똥똥투中중중天뎨뎨//○히중뎨하다//(공백)日심시頭똥똥투燹쥼쥼초초//○히낫비다//
0001	0003	17	日심시頭똥똥투落落了了랄랄//○히지다//(공백)日심시曛훈훈//○히어슬음//
0001	0003	18	回轉회光광光返반반照照조조//○히ㅅ빛맛치다//(공백)影影영兒兒숯숯//○그림자//

<표4> 『譯語類解補』 입력 예시

어휘학습서도 역시 본문의 행을 기준으로 행을 나누어 본문을 입력하되, 언해문 앞뒤에는 ‘//’를 넣는다.

2) 번역 데이터 입력

(1) 번역의 원칙

번역문을 입력하기 전에 각각의 중국어 역학서에 대한 번역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번역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으로 다음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당시의 중국어 원문의 의미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내용을 해석하고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가 가능한 현대 한국어로 내용과 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원칙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는 주음을 제외하면 크게 ‘중국어 원문’과 이에 대한 당대 한국어 번역문인 ‘언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 원문’은 학습 내용이 되는 본문이고, ‘언해문’은 이 본문을 당시 사용하던 한글을 이용하여 당시의 한국어로 풀이한 번역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현대 중국어 및 현대 한국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번역하는가’가 본 연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 원문’을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편찬된 저서이므로 편찬 목적에 따라 번역을 하는 것이 원작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다. 두 번째,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 쓰인 언해문 번역은 이른바 번역투로 당시 실제 언중이 사용하던 한국어와는 차이가 크다.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의 언해문 번역은 특정 중국어 문장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둔 문장으로 당시 한국어 본연의 모습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김완진 1976, 여찬영 1987/1988/2003, 성광수 1990, 김미형 1997). 본 연구 대상 중 『老乞大諺解』는 언해문에 거의 한자어가 출현하지 않는데, 이는 당시 편찬자가 최대한 당시 언중이 사용하던 한국어로 중국어를 번역하려 의도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중국어 원문에서 출현한 한자어를 중복 사용하여 번역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朴通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朴通事新釋諺解』 등에서는 중국어 원문에 등장하는 한자어를 언해문에 재사용하여 풀이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중 『朴通事諺解』의 언해문을 이전에 편찬된 『翻譯朴通事』의 언해문과 비교해보면, ‘當今聖主洪福齊天, 風調雨順國泰民安, 又逢着這春, 休蹉過了好時光.’이라는 문장에 대해 『翻譯朴通事』에서는 ‘이제 성주 너브신 복이 하늘와 ㅁㅅ샤 ㅁ름도 고르며 비도 순흐야 나라히 태평호고 ㅁㅅ성이 편안호저기 쏘이 三月 도 혼 시저를 만나니 도 혼 시경을 건네터 ㅁ리디 말거시라.’라고 풀이한 반면, 『朴通事諺解』에서는 ‘當今에 聖主ㅣ 큰福이 하늘과 ㅁㅅ호야 風調雨順호고 國泰民安호디 쏘 이 봄 二三月 도혼 시절을 만나시니 도혼 時光을 그릇디내디마자.’와 같이 본문의 한자어를 다시 사용하여 풀이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문헌 중 가장 후대에 발간된 『華音啟蒙諺解』의 경우, 대부분의 문장이 거의 현토(懸吐) 수준으로 원문의 어휘를 반복하여 직역하였기 때문에 당시 한국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김영수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언해문을 번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의 언해문 자체에 오역이 존재한다. 먼저 중국어 단어의 다양한 통사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我是朝鮮人 나논 이 朝鮮人사릅이라’(『重刊老乞大諺解』), ‘我是在民的 나논 이 民人이니’(『華音啟蒙諺解』)와 같이 판단 동사인 ‘是’를 대명사의 의미(‘이’)로 오역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형태가 동일한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번역하여 해당 단어의 다양한 용법을 반영하지 못한 예도 등장한다. 그 예로 전치사의 의미를 갖는 ‘就’에 대해 ‘就那裏搬下走了 즉제 게셔 ㅁ리고 ㅁ라나니’,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즉제 게셔 혼 덩이 큰 돌홀 가져다가’(『老乞大諺解』)와 같이 모두 부사 ‘곧’(‘즉제 게셔’)의 의미로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맹주익 2006a/2006b).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언해문을 번역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필요에 따라 언해문의 번역을 참고한다.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는 근대(近代)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대 표준 중국어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는 어

휘가 대량으로 출현하며, 동일한 형태의 어휘라도 현대 표준 중국어의 뜻과 용법에 차이가 나는 어휘도 상당수 등장한다. 이러한 예가 출현한 경우에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서 해당 어휘가 언해문 안에서 어떤 뜻으로 나타나는지 두루 찾아보고 연구한 후 가장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였다. 그 예로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可知’는 동사로 ‘가히 알(짐작할) 수 있다’ 혹은 형용사로 ‘(-인 것도) 당연하다’의 뜻을 갖으나, 언해류 문헌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은 ‘맞습니다’라는 긍정의 대답으로 빈번히 출현한다. 언해문에서는 ‘可知快說謊 그리어니거짓말니르기를잘하느니’, ‘可知有頑的 그리어니ㄴ래느니잇느니라’와 같이 ‘그리어니’로 풀이하여 긍정의 대답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着’를 ‘敎’, ‘讓’과 같은 사역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角頭’를 ‘시장’의 의미로 사용한 것, 기타 많은 조사, 부사, 명사 등의 단어가 현대 표준 중국어와 다른 의미를 사용된 경우 언해문을 통해 의미와 용법을 판단하고 번역에 반영하였다. 세 번째, 기타 현대 표준 중국어 사전에 출현하지 않는 어휘나 현대 중국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어휘에 대해서는 역학서의 한문 협주(夾註)를 참고하여 당시 사용하였던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한다. 본 연구 대상 중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 『伍倫全備諺解』에 한문 협주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본문에 출현하는 어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당시 실제 사용하였던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朴通事諺解』에는 ‘川炒猪肉’이란 구절이 등장하는데, ‘川炒’에 대해 하단 협주에서는 ‘『음의(音義)』에서는 맹물에 볶은 돼지고기라고 했다. 이제 보기에 ‘천초(川炒)’란 소금물에 볶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해당 구절을 ‘소금물에 볶은 돼지고기’로 번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문 협주에는 당시 호칭, 관부, 제도, 의식주, 매매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실었는데, 이는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여 정확한 번역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네 번째, 지명, 인명, 시대명, 서명 등의 고유명사는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현대 중국의 인명, 지명 등은 최근 중국어 발음으로 쓰는 추세이지만, 고대 지명, 인명, 시대명, 서명 등 고유명사는 여전히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한국 한자음대로 표기하였으며, 다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예를 들어 북경(北京), 고당(高唐), 노구교(蘆溝橋), 영명사(永明寺), 태조(太祖), 한(漢)나라, 논어(『論語』) 등이 있다. 다섯 번째, 한자 어휘를 그대로 쓴 한문 번역투나 직역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현대 한국어의 표현에 가깝게 번역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중국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이 읽어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하고자 하였다. 본문뿐만 아니라 특히 한문으로 이루어진 협주, 서문(序文), 발문(跋文)의 경우에도 해당 문장에 나타난 단어와 어휘를 자세히 풀

어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섯 번째, 대화 참여자의 신분, 지위, 나이에 따른 높임법을 적용하여 번역한다. 회화학습서의 특성상 역학서들에는 관인과 백성, 연장자와 연소자, 부모와 자식 등 다양한 대화 참여자가 등장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대화 참여자의 신분에 따라 하계체, 합쇼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등 다양한 높임법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위는 본 연구의 모든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 번역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휘학습서의 경우 각각의 단어가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회화학습서와는 달리 전후 문장 맥락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추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많은 단어가 현대 표준 중국어 및 한자 사전, 근대(近代) 한어(漢語)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아 번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에 어휘학습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부 원칙을 추가하였다.

첫 번째, 어휘학습서의 번역도 다른 역학서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언해문이 아닌 중국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휘학습서에서 중국어 단어에 대한 언해문 번역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譯語類解補』에서 ‘照樣’은 ‘그대로’라고만 쓰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하다(따르다), 예전대로 하다(따르다)’라고 풀이하여 그 용법과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언해문을 기준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정확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 어려우므로 기본적으로 중국어 단어를 번역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언해문에 쓰인 단어가 국어 사전에도 등장하지만 상용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자세히 풀이한다. 예를 들어 『譯語類解』에서 ‘咬牙’는 ‘切齒하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절치(切齒)하다’가 국어사전에 등장하지만 상용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번역문에서는 ‘분하여 이를 갈다’로도 풀이하였다. 『譯語類解補』의 ‘行會’역시 ‘지위하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지위(知委)하다’가 국어사전에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통시나 고시로 명령을 알려주다’로도 풀이하였다. 세 번째, 부가 설명이 필요한 관직, 관부, 호칭 등의 용어에 는 최대한 자세히 풀이한다. 예를 들어 『譯語類解』에서 ‘權官’은 ‘權知’로 풀이되어 있는데, ‘權知’도 우리말 한자 어휘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 빈도가 낮아 한자를 병기하여도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괄호와 쉼표를 이용하여 더 자세하게 풀이하였다. 즉‘권지(權知, 과거 합격자로서 각 관청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는 견습 관원으로,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임시직임을 나타냄), 권력과 세력이 있는 벼슬’과 같은 형식으로 번역한다. 네 번째, 해당 어휘에 대한 언해문 풀이 외에 다른 뜻이 있을 경우 이 다른 뜻도 역시 번역문의 내용 안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譯語類解』에 수록된 ‘莊家’는 ‘항음’으로 풀이되어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뜻 외에 ‘농사짓는 사람’, ‘농가’, ‘노름의 선’, ‘금융시장의 큰 손’이란 의미 항목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번역문에 기입하였다.

다섯 번째, 어휘학습서에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 및 각종 중국어 사전, 국어사전을 통해서도 파악이 불가능한 소수의 어휘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번역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어휘에 대해서는 ‘해당 어휘의 한국한자음(언해문)’의 형식으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譯語類解』에 수록된 단어 중 최종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替更’에 대해서 ‘체경(새경드다)’, ‘一泓泉’에 대해 ‘일홍천(一口泉)’ 등으로 입력하였다. 여섯 번째, 어휘학습서의 언해문 뜻풀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又’는 ‘또한’으로, ‘一云’은 ‘-라고도 한다.’로 옮긴다. 일곱 번째, 어휘학습서의 언해문에는 주음(注音)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번역문 옆에 그대로 표기한다.

번역에는 크게 인터넷상의 전자 정보와 지류로 출간된 서적을 참고하였다. 인터넷상의 전자 정보로는 네이버 중국어 사전³¹⁾, 네이버 국어사전³²⁾, 네이버 한자사전³³⁾ 및 바이두(Baidu, 百度) 백과(百科)³⁴⁾, 바이두 한어(漢語)³⁵⁾, 위키백과³⁶⁾, 워셔너리³⁷⁾, 한전(漢典), 맹전(萌典)³⁸⁾ 등 다양한 전자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 안의 어휘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정보 원천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풀이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필요에 따라 우리말 큰사전³⁹⁾, 이조어사전⁴⁰⁾, 한어방언대사전(漢語方言大詞典)⁴¹⁾, 근대한어사전(近代漢語詞典)⁴²⁾, 동북방언대사전(東北方言大詞典)⁴³⁾, 동북방언개념사전(東北方言概念詞典)⁴⁴⁾, 동북방언사전(東北方言詞典)⁴⁵⁾ 등을 참고한다.⁴⁶⁾

31) NAVER Corp, Naver 사전, 중국어사전, <https://zh.dict.naver.com/>;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국어 사전은 다양한 중국어 사전 풀이가 제공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출간한 중국어사전, 한한중사전, 교학사에서 출간한 현대중한사전, 차이나랩에서 제공하는 에듀월드 중한사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서 출간한 중한사전 등이 있다.

32) NAVER Corp, Naver 사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 대표적이다.

33) NAVER Corp, Naver 사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

34) 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35) 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百度漢語, <https://hanyu.baidu.com/>

36)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백과(한국어), ko.wikipedia.org/

37) 위키미디어 재단, 워셔너리 - 위키낱말사전, www.wiktionary.org/

38) 唐鳳, 萌典, www.moedict.tw/

39)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4.

40)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41) 許宝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2020.

42) 白維國·江藍生·汪維輝, 『近代漢語詞典』, 上海教育出版社, 2015.

43) 唐聿文, 『東北方言大詞典』, 長春出版社, 2012.

44) 尹世超, 『東北方言概念詞典』, 黑龍江大學出版社, 2010.

45) 馬思周·姜光輝, 『東北方言詞典』, 吉林文史出版社, 2005.

46) 각주 32)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 안의 주음, 어휘는 東北方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東北方言 관련 사전을 많이 참고하였다.

(2) 번역문 데이터 입력

번역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력하였다. 첫 번째, 본 연구 대상의 원문 보기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번역한다. 중국어 원문뿐만 아니라 제목, 서문, 인용서문, 한문 협주, 발문, 편찬자, 권(卷) 정보 및 마침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번역한다. 두 번째, 회화학습서의 경우 중국어 원문이 시작되는 권, 면, 행을 입력하고 상응하는 번역문 데이터를 표 안에 입력한다. 중국어 원문 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 문장은 이를 모두 독립된 행으로 분리하여 입력한다. 세 번째, 어휘학습서의 경우 한 행에 한 단어에 대한 풀이를 입력한다. 네 번째, 한문 협주의 경우 이것이 시작되는 권, 면 행을 입력하고 상응하는 번역문을 입력한다. 다섯 번째, 한문 협주 앞에는 ○(도형 기호, 유니코드 25E6)을 입력한다. 여섯 번째, 중국어 원문 안에 대화자가 표시된 경우(예, 『伍倫全備諺解』) 괄호 안에 발화자 이름을 입력한다. 일곱 번째, 제목이나 인용 서문 부분에서 띄어쓰기가 필요한 지점에는 (공백)이라고 표기한다. 여덟 번째, 지명, 인명, 시대명 서명 등 고유명사는 한국한자음으로 입력하고 옆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아홉 번째, 『老乞大』, 『朴通事新釋』과 같이 원문 상에 문장 시작점에 대한 표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혹은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을 행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권, 면, 행을 입력하고 번역문을 입력한다. 열 번째, 서문이나 발문과 같이 원문 상에 문장 시작점에 대한 표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을 행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권, 면, 행을 입력하고 번역문을 입력한다. 열한번째, 서명의 앞뒤에는 『, 』를 표기한다. 열두 번째, 원문보기 상으로 식별 불가하여 번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로 입력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입력된 번역문 데이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권	면	행	번역문
0001	0021	1	오륜전비언해(伍倫全備諺解) 권(卷)1
0001	0021	2	(大生)소생의 성은 오(伍)이고, 이름은 윤전(倫全)입니다.
0001	0021	3	자(字)는 천상(天常)이라 부르는데
0001	0021	3	이는 춘추(春秋)시대 오자서(伍子胥)의 후예입니다.
0001	0021	5	○오자서(伍子胥)는 이름이 원(員)이고, 초(楚)나라 평왕(平王)때 사람이다.
0001	0021	5	부친의 휘(諱)는 전(典)이니
0001	0021	6	○『증보자휘(增補字彙)』에 살아서는 '명(名)', 죽어서는 '휘(諱)'라 하였다.
0001	0021	6	생전에 태평군(太平郡)태수를 지내셨습니다.

0001	0021	7	○태평군은 『광여기(廣輿記)』우공(禹貢)편에 양주(楊州) 지역이라고 했다. 춘추 시대에는 오(吳)나라 땅이었는데, 후에 월(越)나라에 속했고, 전국(戰國)시기에는 초(楚), 진(秦)나라 때에는 장군(郭郡), 한(漢)나라 때에는 단양(丹陽), 진(晉)나라 때에는 당도(當塗), 유송(劉宋) 때에는 고숙(姑孰), 당(唐)나라 때에는 남예주(南豫州), 송(宋)나라 때에는 평남(平南) 혹은 태평(太平)이라고 했으며, 명(明)나라 때에는 태평부(太平府)라고 했다.
------	------	---	---

<표5> 『伍倫全備諺解』번역문 데이터 입력 예시

괄호 안에 발화자를 입력하였으며, 원문에서 분리된 행은 독립적으로 행을 표시하고 번역문을 입력하였다. 하단에 출현하는 한문 협주는 ○표기 이후 번역문을 입력하였다. 또한 서명, 시대명, 인명, 관직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에는 모두 한국 한자음 옆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권	면	행	번역문
0001	0016	19	관부(官府)
0001	0016	20	대아문(大衙門), 큰 마을, 상급 관청, 관아
0001	0016	20	소아문(小衙門), 작은 마을, 하급 관청, 관아
0001	0016	20	지방의 큰 마을, 부(府, 옛 행정 구역명)
0001	0016	21	버금가는 고을, 주(州, 옛 행정 구역명)
0001	0016	21	작은 고을, 현(縣, 옛 행정 구역명)
0001	0016	21	중서성(中書省, 옛 중앙 관청명)
0001	0016	21	육부(六部, 옛 6개 행정 부서의 총칭)
0001	0016	21	종인부(宗人府, 옛 관리 감독 부서)
0001	0016	22	도찰원(都察院, 옛 政務 감찰 기관)
0001	0016	22	한림원(翰林院, 옛 詔書 작성 및 자문 담당 기관)
0001	0016	23	이번원(理藩院, 옛 국경 관리 및 감독 기관, 理藩部の 舊稱)
0001	0016	23	내무부(內務府, 옛 국고 관리 및 감독 기관)
0001	0016	23	총리아문(總理衙門, 옛 외교 담당 기관)
0001	0016	24	차면담(遮面牆,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집 앞에 쌓은 담)
0001	0016	24	좌기(坐起)하다,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다.

<표6> 『華語類抄』번역문 데이터 입력 예시

어휘학습서는 한 행에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출현하는데, 이를 모두 독립된 행으로 분리하여 번역문을 입력하였다. 한국어 어휘에도 있으나, 상용하지 않는 어휘나 고유명사는 모두 괄호 안에 한자로 병기 후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언해문에 출현하는 동의어와 이에 대한 주음(注音)은 그대로 표기하였다.

5.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원문 데이터와 번역문 데이터 구축

본 연구의 원문 데이터와 번역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식과 구조로 구축하였다. 이들을 모두 UTF-8로 인코딩했으며, RDB(Relational Database) 적재를 위한 TSV(Tab Separated Values) 형식과 어휘·어음 정보 포함을 대비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을 모두 구축했다.

(1) TSV 형식

TSV 형식의 스키마는 원문ID,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분류, 텍스트이다. 원문ID는 개별 원문 텍스트의 고유번호이고, 서명은 대상 문헌명이며, 청구기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청구기호이다. 권은 대상 텍스트의 출현 권, 면은 대상 텍스트의 출현 면, 행은 대상 텍스트의 출현 행이다. 분류는 ‘본문’과 ‘주석’으로 구분하였으며, 텍스트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이다. 원문 텍스트의 경우 중국어 원문과 제목은 ‘본문’에 해당하며, 언해문 풀이 및 한문 협주는 ‘주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류된 스키마는 인해 향후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본문 혹은 주석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번역문 텍스트도 원문 데이터에 준하여 스키마를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분류된 스키마는 인해 향후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본문 혹은 주석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원문ID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분류	텍스트
1	노걸대 언해	奎2044-v.1-2	1	002a	1	본문	老鴛鴦乞鴛鴦大따다諺연연鮮계계上쌍쌍
2	노걸대 언해	奎2044-v.1-2	1	002a	2	본문	大따다哥거거你니니從從中中那나나裏리리來래
3	노걸대 언해	奎2044-v.1-2	1	002a	2	주석	○큰형아네어드러로
4	노걸대 언해	奎2044-v.1-2	1	002a	3	주석	셔브터온다
5	노걸대 언해	奎2044-v.1-2	1	002a	3	본문	我어오從從中中高高갸갸麗리리王왕왕京京京來래

6	노걸대 언해	奎2044-v. 1-2	1	002a	3	주석	○내高
7	노걸대 언해	奎2044-v. 1-2	1	002a	4	주석	麗王京으로써브터오라

<표7> 『老乞大諺解』TSV형식 원문 데이터 구축 예시

번역문 ID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텍스트
1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0a	1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공백) 건(乾)
2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2a	1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상(上)
3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2a	2	형님,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4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2a	3	나는 고려(高麗)의 서울(王京)에서 왔소.
5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2a	4	이제 어디로 가시오?
6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2a	5	난 북경(北京)으로 가오.
7	노걸대언해	奎2044-v.1-2	1	002a	5	그대는 언제 서울(王京)을 출발했소?

<표8> 『老乞大諺解』TSV형식 번역문 데이터 구축 예시

(2) XML 형식

XML 형식은 원문과 번역문 모두 동일한 스키마 구조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원문 XML 형식 스키마는 루트를 “프로젝트결과물_원문”으로 하고, 개별 텍스트 단위로 원문ID,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분류를 속성으로 두었다. 원문ID는 개별 텍스트의 고유번호이고, 서명은 대상 문헌명이며, 청구기호는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의 청구기호이다. 권은 원문보기 상으로 분리된 권(0001, 0002, 0003 등), 면은 원문보기 상에서의 대상 텍스트의 출현 면, 행은 원문보기 상에서의 대상 텍스트의 출현 행이다. 분류는 ‘본문’과 ‘주석’으로 구분하였다.

번역문의 XML 형식의 스키마는 루트를 “프로젝트결과물_번역문”으로, 개별 텍스트 단위로 원문ID, 서명, 청구기호, 권, 면, 행, 분류를 속성으로 두었다. 원문ID는 개별 텍스트의 고유번호이고, 서명은 대상 문헌명이며, 청구기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청구기호이다. 권은 대상 텍스트의 출현 권, 면은 대상 텍스트의 출현 면, 행은 대상 텍스트의 출현 행이다.

<프로젝트결과물_원문>

```

<text 원문ID="1"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1" 분류="본문">老갈란乞킹기大따다諺연연解계계上쌍상</text>
<text 원문ID="2"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2" 분류="본문">大따다哥거거你니니從중충那나나裏리리來래래</text>
<text 원문ID="3"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2" 분류="주석">○큰형아네어드러로</text>
<text 원문ID="4"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3" 분류="주석">셔브터온다</text>
<text 원문ID="5"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3" 분류="본문">我어오從중충高갈高麗리리王왕왕京京京來래래</text>
<text 원문ID="6"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3" 분류="주석">○내高</text>
<text 원문ID="7"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a"
  행="4" 분류="주석">麗王京으로서브터오와</text>

```

<표9> 『老乞大諺解』 XML형식 원문 데이터 구축 예시

<프로젝트결과물_번역문>

```

<text 번역문ID="1"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0
  a" 행="1">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공백) 건(乾)</text>
<text 번역문ID="2"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
  a" 행="1">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상(上)</text>
<text 번역문ID="3"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
  a" 행="2">형님,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text>
<text 번역문ID="4"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
  a" 행="3">나는 고려(高麗)의 서울(王京)에서 왔소.</text>
<text 번역문ID="5"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
  a" 행="4">이제 어디로 가시오?</text>
<text 번역문ID="6"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
  a" 행="5">난 북경(北京)으로 가오.</text>
<text 번역문ID="7" 서명="노걸대언해" 청구기호="奎2044-v.1-2" 권="0001" 면="002
  a" 행="5">그대는 언제 서울(王京)을 출발했소?</text>

```

<표10> 『老乞大諺解』 XML형식 번역문 데이터 구축 예시

6. 나오며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중국어 역학서에 관한 원문, 번역문 및 언어 정보를 총망라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많은 수량의 조선 시대 중국어 역사서 원문 안의 모든 중국어 원문, 주음(注音), 언해문 및 중국어 원문에 대한 번역을 수행했다. 두 번째, 연구 과정에서 추출한 중국어 어음 정보 및 어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했으며, 이를 중국어 원문과 언해문과 상호 연계했다. 세 번째, 본 연구의 모든 결과물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여, 규장각 웹사이트에서 곧장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서 디지털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 및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기대한다. 첫째, 국어학 및 중국어학 교육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역학서는 기본적으로 이중언어 자료로, 당시 국어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중국어학계에서는 근대 중국어 음운, 어휘, 어법, 화용, 담화 텍스트 및 문자학 방면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국어학계에서도 역학서 출간 당시의 언문과 어음에 대한 한글 표기, 어휘 및 어법과 화용 측면에서 연구와 교육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문 영역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 및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역대 언어 자료를 망라하여 이를 현대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성과를 디지털 인문학 성과의 한 예로 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본 연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에 대한 사회사적, 문화사적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된 음소 단위의 어음 데이터베이스와 어휘 데이터베이스를 말뭉치 및 AI 기술과 접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중국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아울러 ‘실생활 속 인문학’의 구현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 현·임영상·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 김철준, 『「화어류초」의 어휘 연구』, 역락, 2004.
- 丘 濬 著, 高時彦等 譯註, 『오륜전비언해』, 학교방, 1995.
- 朴在淵 校點, 『중간노걸대언해』,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3.
- 박성훈, 『노걸대언해사전』, 태학사, 2009.
- _____, 『번역박통사사전』, 태학사, 2010.
- _____, 『박통사언해사전』, 태학사, 2012.
- _____, 『박통사신석사전』, 태학사, 2015.
- 신용권, 『(「老乞大」와 「朴通事」언해서의) 중국어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 _____, 『老乞大 朴通事 研究: 漢語文에 보이는 語彙와 文法의 特徵을 中心으로』, 태학사, 1998.
- _____, 『(漢學書), 老乞大 朴通事 研究』, 제이앤씨, 2008.
- _____, 『漢學書研究』, 박문사, 2010.
- 汪維輝 校點, 『노걸대언해』,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3.
-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 李應憲 著, 李在弘, 金瑛 [共]校注, 『화음계몽언해』,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2.
- 전기정, 『華語類抄: 部 天字文, 百家姓』,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4.
- 정 광, 『사역원 역학서 책판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_____, 『(原本) 노걸대』, 김영사, 2004.
- _____,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2006.
- _____, 『여주 번역논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2006.
- _____,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2014.
- _____, 『역학서의 세계』, 박문사, 2017.
- 정승혜, 『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 박문사, 2011.
- 장숙영, 『박통사 언해류』(상), 한국문화사, 2008.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4.
- 白維國·江藍生·汪維輝, 『近代漢語詞典』, 上海教育出版社, 2015.
- 李泰洙, 『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2003.
- 馬思周·姜光輝, 『東北方言詞典』, 吉林文史出版社, 2005.
- 錢曾怡, 『漢語官話方言研究』, 齊魯書社, 2010.
- 唐聿文, 『東北方言大詞典』, 長春出版社, 2012.
-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2020.
- 尹世超, 『東北方言概念詞典』, 黑龍江大學出版社, 2010.
- 鄒德文, 『清代東北方言語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논문>

- 강용중, 『譯語類解·補』 상업어휘 연구, 『중국문학연구』, No.45, 한국중문학회, 2011.
- 김미형, 「언해문의 문체 특징 연구」, 『어문학연구』, 제6호,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 김영수, 「『화음계몽언해』의 언어적특징과 번역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119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2.
- 김완진, 「번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의 비교연구」, 『동양학』, 제5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5.
- 김철준·고완린, 「대역어휘집 『漢語抄』와 『方言類釋』의 어휘 분류체계에 대하여」, 『어문론총』, 제8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 중 ‘就’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9호, 중국문화연구학회, 2006.
- _____, 「『老乞大』 諸諺解本所反映的對“又”, “再”, “還”語法功能的掌握情況」, 『중국연구』, 4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8.
- 박철민, 「戊申字本 『老乞大諺解』의 善本과 교정 고찰」, 『규장각』, vol.5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9.
- 성광수, 「언해류에 나타난 ‘이’(是)의 강조 용법과 해석」, 『어문논집』, 27호, 안암어문학회, 1987.
- 여찬영, 「경서류 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3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7.
- _____, 「조선조 구결문과 언해문의 성격 연구」, 『국문학연구』, 제11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8.
- _____, 「조선조 언해서의 번역비평적연구」, 『배달말』 제33권, 배달말학회, 2003.
- 연규동, 「활자본 『화어류초』의 서지학적 연구」, 『국어사연구』, 제20호, 국어사학회, 2015.
- _____, 「유해류 역학서의 종합적 검토」, 『국어사연구』, 제22호, 국어사학회, 2016.
- 이순미, 「『노걸대(老乞大)』에 보이는 긍정응답어 “가지(可知)” 고찰」, 『중국어문논총』, 61호, 2014.
- 이준환, 「19세기, 20세기 초 漢語 학습서의 구성과 華音에 대하여」, 『한국문화』, 제8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 홍순혁, 「華語類抄 小考」, 『한글학회』, 11(4), 1976.
- 홍윤표·정광, 「사역원 한학서의 판본 연구(1)」, 『한국어학』, 14집, 한국어학회, 2001.
- 鄒德文·金茗竹, 「朝鮮四種文獻所見漢語聲母的清代東北方音特徵」, 『北方論叢』, 第2期, 哈爾濱師範大學, 2015.

<기타자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 『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

『네이버 중국어사전』: <https://zh.dict.naver.com/>

『위키백과』: ko.wikipedia.org/

『위키셔너리』: www.wiktionary.org/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서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AAA-2101>

『어디메』: <https://akorn.bab2min.pe.kr/>

『한국어 역사자료 말뭉치』: <https://kohico.kr/국어사>

『Baidu(百度)』: <http://www.baidu.com/>

『Baidu Hanyu(百度漢語)』: <https://hanyu.baidu.com/>

『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漢典』: <https://www.zdic.net/>

『教育部異體字字典』: <https://dict.variants.moe.edu.tw/>

『萌典』: <https://www.moedict.tw/>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語譯學書, 數據, 語義數據, 司譯院, 朝鮮時代, 『老乞大』, 『朴通事』, 諺解, 左音, 右音, 現代文翻譯				
	영문	Chinese translation textbook, Database, Semantic data, Sayeokwon, Joseon Dynsaty, 『Lao qida』, 『Piao tongshi』, Eonhae, Left phonetic transcription, Right phonetic transcription, Modern Korean translation				
<div>A study on Database Construction of Chinese Textbooks in Chosun Dynasty</div> <div>Khoo Hyun-Ah · Kim Ba-Ro · Shin Soo-Young · Eom Ji</div> <p>This study intended to establish database on Chinese textbooks of Chosun Dynasty as reflecti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fter modern times among Korean language materials. Since ancient times, Korea has had the closes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with China. So, Chinese has alway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foreign language. The Chinese translation textbook of the Chosun Dynasty, published after the creation of Hangeul, can be said to be a important literature that contains abundant information on language characteristics, life, and cultural aspects of the time. Although their research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they are still at a very rudimentary stage in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environments. So only scanned original images or incomplete secondary data processing works can be viewed on the website. But in China and Taiwan, data service technology on classical language materials has reached a significant level, as we can see in <Xiaoxuetang>, <Dongfang Yuyanxue>, <Jiaoyubu Yitizi Zidia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build original, translation text data, Word data and Ponetic Data that can be linked to the existing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used 31 differenent version of 『Laoqida Yanjie』, 『Piaotongshi yanjie』, 『Yiyuleijie』, 『Wulunquanbeiyanjie』, 『Yiyuleijie-bu』, 『Piaotongshi Xinshi Yanjie』, 『Chongkan Laoqida Yanjie』, 『Huayinqimenggyanjie』, 『Huayuleichao』, 『Laoqida』, 『Piaotongshi Xinshi』. All data established as TSV(Tab Separated Values) and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format.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achievement to cover the original and translated texts of Chinese translation books in the Chosun Dynasty. The Chinese textbooks Database will help rediscover the value of declining data of Korea,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earch, and realize true humanities in life through the digital world.</p>						
저 자	제1저자	구현아 / 具賢娥 / Khoo Hyun-Ah				
	교신저자	김바로 / 金바로 / Kim Ba-Ro				
	참여저자	신수영 / 申修瑛 / Shin Soo-Young				
	참여저자	엄 지 / 嚴 智 / Eom Ji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1.24.	심 사 일	2022.02.23.	게재확정일	2022.03.11.